

올해도 몰아칠 '할인' 바람

적극적 출점으로 시장 잠식 거세질 듯

지난해 유통업계에서 돌풍을 일으킨 할인점은 백화점, 슈퍼마켓 등 기존 유통업체가 매출부진을 보인 가운데 뚜렷한 매출신장을 보였다. 특히 인천, 부천,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출점, 기존 유통업체의 소비자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할인업체들은 향후 2천년까지 대대적인 출점을 계획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할인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에 입점해 있는 할인 베이커리에도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신도시 위주 출점, 소비층 대거 흡수

할인 베이커리가 표면에 부상한 것은 지난해 1월 인천 마크로에 베이커리 매장이 개설되면서부터다. 마크로는 '아로베이커리' 라는 브랜드로 베이커리 매장을 설치하면서 운영 주체를 외부인에게 맡겼다. 할인 경쟁을 위해서 기업보다 개인이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천 아로베이커리는 개점 초기부터 시중보다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급격한 매출신장을 보여 지난해에는 총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280만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특히 지난 크리스마스때는 이브 당일에만 약 3천개의 케이크를 판매, 1,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인천 아로베이커리측은 밝혔다.

이와 반면 지난 11월 오픈한 마크로 일산점의 아로베이커리는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인 프랑세즈가 입점해 있는데 예상보다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입점 초기라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현재 하루 100만원 내외의 매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 아로베이커리는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보다 20% 신장한 12억원으로 잡았다. 영업이 본 궤도에 오른 이상,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



▲ 지난해 11월 각각 분당과 광명에 오픈한 데이앤데이, 상례리제 매장.

다.

이를 위해 주변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주문 판매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설을 보완,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희순 인천 아로베이커리 대표는 "올 6월경 개장되는 마크로 분당점의 아로베이커리 운영을 추가로 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크로는 올해 분당 외에도 연말경 대전 둔산점

을 오픈할 계획이다.

아로베이커리가 할인 베이커리의 불을 당겼다면 까르푸는 이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부천 증동에 첫 점포를 연 까르푸는 매장 내에 대규모로 자체 베이커리를 설치, 관심을 모았다. 부천점의 경우 요즘 하루 평균매출이 평일 300~400만원, 주말 900~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초기에는 가격할인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 다소 고전하는 모습이였다. 이후 가격을 새롭게 조정, 매출이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3호짜리 생크림케이크를 8천원에 내놓는 등 시중보다 40~50% 싼 가격으로 약 2,500개의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까르푸는 현재 부천 이외에 일산, 대전 둔산 등 3개의 분점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에 인천 계산과 구월, 분당, 부산, 안양 등 5곳에 분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까르푸베이커리는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제품수를 20~30가지로 최소화해 제품관리 효율을 높이고 품질도 강화해 상승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로베이커리와 까르푸베이커리보다 먼저 할인점에 진출한 신라명과의 봉가또는 할인 베이커리 붐이 활성화되면서 올해에도 3개의 매장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현재 E마트 일산점, 부평점과 신세계 영등포점, 광주점 등 4곳에 입점해 있는데 향후 E마트 외에 타할인점에도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라명과는 봉가또를 제 2의 브랜드로 확고히 정착시킴으로써 향후 독립적 운영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신규진출 활발, 인근 업소 타격 심화될 듯

지난해 11월 E마트 분당점에 할인 베이커리로 입

점한 조선히otel의 데이엔데이도 상당한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평일 300여만원, 주말 6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엔데이는 향후 오픈 예정인 E마트 분점에 계속 입점하기로 하고 2호점을 올 7월경 이천, 청주, 안양, 수원 등 올해 E마트 분점 예정지역 중 한 곳에 개설할 방침이다.

나산그룹의 상제리제는 지난해 11월 계열 할인점인 클레프 광명점에 첫 점포를 연 것을 시작으로 올 7월경 문을 여는 클레프 광주점에 2호점을 개설하고, 이후 클레프 분점 예정지역인 안양, 김포, 목포, 광양, 포항, 원주, 여천, 익산, 군산 등에도 점포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한편 신세계 계열 할인점인 프라이스클럽이 매장 안에 자체 베이커리를 세울 예정으로 이를 준비 중이며 올해 문을 여는 프라이스클럽 수지점에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처럼 올해에도 할인 베이커리가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베이커리 시장이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기존 제과점들의 매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각축장인 일산, 분당의 예를 보더라도 이들 할인 베이커리와 인접한 지역의 제과점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백**



▲ 프라이스클럽은 올해 자체 베이커리를 개설할 예정이다.